

다시「르 꼬르뷔제」……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와 파리 :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강연을 듣고

Review of Le Corbusier Lecture

ISSUE

李相海 / 성균관 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by Lee, Sang-Hae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와 파리 :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 강연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를 다시 생각해 하였다. 그날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테일러」교수의 강연보다는 근대건축가 「르 꼬르뷔제」라는 우상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았던가 싶어서이다.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 건축에 관한 강연이든,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 건축」에 관한 강연이든,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 강연을 듣는 사람이 강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다르지 않을까 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날 「르 꼬르뷔제 건축」에 관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는 르 꼬르뷔제 건축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을 준 강연이었을 것이고,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건축에 관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는 근래에 드문 좋은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지 않았을까 해서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강연이 끝나고 있는 질문에서 역력히 나타났다. 연사에게 르 꼬르뷔건축에 대한 모든 것, 아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건축현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강연자 당신, 테일러교수에게 듣고 싶다는 내용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 교과서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모든 것, 그러면서도 밖에서 유행되고 있는 그 어떤 건축 흐름의 질곡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바탕을 둔, 좀 더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강연회나 세미나에 임하는 자세에서 더욱 그러한 것을 느낀다.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 건축에 관한 강연은 「테일러」교수가 「연구」한 「르 꼬르뷔제 건축의 어느 한 부분」에 관한 강연이었다. 다시 말하면 테일러교수 자신의 관점에서 르 꼬르뷔제 건축의 어느 특정한 한 면, 즉 어느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에 바탕을 둔 강연이었다. 이러한 강연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건축가로서 건축을, 건축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난관을 이기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실제에 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건축가 르 꼬르뷔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테일러교수의 강연과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인 도전의 자세, 그의 건축적인 성취가 오늘,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바가 있었다면 테일러교수의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테일러교수의 강연내용 몇 부분을 다시 살펴보자.

테일러교수는 사실 건축가 르 꼬르뷔제와 그의 건축에 관하여 전공하였기 때문에 르 꼬르뷔제와 그의 건축에 관한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더구나 그가 이번에 강연한 파리의 구세군 건물(Salvation Army, *Cité de Refuge*)인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기도 하다. 테일러교수는 르 꼬르뷔제 건축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건물도 르 꼬르뷔제의 건축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 프랑스의 사회 경제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밀도있게 보여주었다.

르 꼬르뷔제는 1920~30년대에 유럽에 팽배하고 있던 모더니즘을 하나의 실천적인 아이디어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건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즉 그는 자신의 건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건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구세군 건물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테일러교수가 주장하려는 첫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건축가가 추구하려는 이상인 동시에, 현실로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르 꼬르뷔제는 자신의 건축어휘로 다듬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테일러교수는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인 구세군 건물은 인구 약 5천명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이었다고 하며, 이 건물은 그 속에 근린시설, 숙박시설까지 갖춘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치적인 도시(Autonomous City Itself)라고 할만한 건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르 꼬르뷔제가 그후에 제안한 알지에 도시계획안이나 리오테자네이로 계획안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소규모 건축인 구세군 건물은 이러한 이상적인 도시개념에 대한 아이디어가 축약된 내용으로 반영된 건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가 르 꼬르뷔제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것이 있다면 건축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이 점이 우리가 르 꼬르뷔제를 두고 두고 빼어난 건축가로 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비록 하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구세군 건물을 설계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테일러교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다.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건축가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던 제도, 법규에 관한 것이었다. 르 꼬르뷔제의 초기안은 당시의 건축법규에 의해 주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는 초기안이 지닌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경사지며 세트백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규제를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우리가 교훈을 얻는 부분은 이 점이 아니라 법규나 제도가 시대상황을 선도하지 못하고 항상 뒤쫓아가는(Out of Date) 현실 속에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부분이다.

특히 르 꼬르뷔제는 구세군 건물에서 남쪽으로 향한 전면이 높이 120피트, 길이 250피트의 유리창을 고정창으로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주된 이유는 당시의 건축기술적인 성취가 이제는 이러한 형식의 건축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물론 완벽한 공기조화시설의 뒷받침은 없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건축법규는 이러한 건축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새로이 전개될 시대 속의 건축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술을 따르지 못하는 낡은 법규에 대하여 건축가로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며 도전을 하고, 자신의 건축을 어떻게든 구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이 테일러교수가 그의 강연에서 주장하려는 세번째 주제내용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건축가란 이러한 자세를 지니며 건축을 하는 건축가일 것이다. 새로운 건축의 제안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새로운 건축의 제안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단체,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대한 건축사협회이고, 그 속에 몸담고 있는 회원인 건축사들일 것이다.

해야 할 단체,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대한 건축사협회이고, 그 속에 몸담고 있는 회원인 건축사들일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며 당시의 제도적인 제약을 새로운 제도장치로 변형시키려고 노력한 건축가였다.

아직도 세계 현대건축은 건축가 르 꼬르뷔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활동무대였던 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의도하며 테일러교수는 우리에게 인상적인 슬라이드 사진 한 장면을 보여 주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르 꼬르뷔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장면 저 멀리 파리지 모습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그림자는 오늘, 우리 한국건축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르 꼬르뷔제 이후의 파리, 그리고 세계 현대건축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근대건축 이후의 현대건축 즉 포스트모던 건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사진을 보여 주었다.

파리의 퐁피두센터, 아랍세계연구소, 라 데팡스, 로스 엔젤레스의 보나벤처호텔 등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건축은 르 꼬르뷔제가 추구하려고 한 건축의 진보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건축의 스케일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며, 도시 경관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문맥적인 측면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이며, 더구나 기계문명에 대한 접근자세가 르 꼬르뷔제와는 전연 다르다는 것이다(Two Different Kinds of Machines for Living). 건축에 응용된 기술 역시 단순히 인간들의 감각만 자극하는 쪽으로 이용되었거나 그 이용 방식이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않으며 또한 옛날 전통을 흉내는 내지만 역사적인 교훈을 제대로 전수받아 새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건축은 지배적인 정신이나 아이디어가 없고, 프로그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일러교수는 건축의 진보성을 같은 자(尺)로서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은 자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서슴치 않고 자신을 위한 건축을 만드는 반면, 그 이전의 건축가들은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그 문맥(Context) 속에서 건축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 엠 페이의 루블박물관 증축안은 공간이용면이나 도시의 연속성 등 여러 관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또한 테일러교수는 르 꼬르뷔제가 추구하려고 한 건축의 하이테크적인 내용도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를 개선(Improve)하려는 건축적인 의지나 확신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테일러교수는 건축평가의 중심을 근대건축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그는 근대건축, 특히 르 꼬르뷔제 건축의 예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르 꼬르뷔제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이전의 건축과는 다른, 자신의 시대에 맞는 건축을 하였듯이, 근대건축 이후의 건축가들 역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근대건축 이후의 건축을 좀 더 다른 견해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테일러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근대건축을 지배한 건축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에 있었다고 해서, 근대건축 이후의 건축가들 역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건축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은 르 꼬르뷔제 이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르 꼬르뷔제 이후의 시대에도 굳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건축을 꼭 하여야만 할까. 앞으로의 세계는 특히 다양한 세계관이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권화된 문화적 자주성을 더 추구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목표를 향한 운동(Praxis)을 시작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지나간 세기에 획득한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소화시켜 하나로 맞물려진 건축을 해 나가야 하는 운동을 해야 할 시대라고들 이야기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테일러교수의 관점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좀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 건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면을 몇 가지 더 지니고 있다. 그는 오늘날의 건축, 즉 포스트모던 건축과 그 이후의 건축은 하나의 스타, 하나의 개성만 존재하고 건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맥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반면, 르 꼬르뷔제는 주위 상황, 환경에 잘 맞는 건축을 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건축을 그는 좋은 건축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하고 싶은 부분이다. 만약 르 꼬르뷔제가 주위 상황, 환경에 잘 맞는 건축을 하려고 했다면, 그 상황이나 환경은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상황, 즉 산업사회의 기술과 기계문명과 연관된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 나올 것 같다.

실제로 르 꼬르뷔제는 그 당시의 산업 문명사회가 지향하며, 만들어 낸 기술을 그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까지를 제시한 건축가였다. 구세군 건물에서의 설비시설에 대한 제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편할 것 같다. 특히 르 꼬르뷔제가 제안한 파리지 개조안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하려는 문맥과는 다른 제안 내용이다. 그는 기존의 파리지 건물들을 없애고 새로운 환경속에 새로운 건축을 파리에 실현시키려고 한 건축가였다.

르 꼬르뷔제는 특히 구세군 건물에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남쪽으로 향한 전면에 높이 120피트, 길이 250피트의 유리창을 고정창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테일러교수의 지적처럼 공해에 찌들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구세군건물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과 건물자체의 강렬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물리적인 환경과 조화하는 문맥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문맥이다. 기계, 기술적인 애용을 수용하여 그것이 건축 속에 일체가 되어 어우러지게 한 것도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맥을 고려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테일러교수는 르 꼬르뷔제가 구세군 건물의 전면을 유리창으로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르 꼬르뷔제는 그 당시의 산업 문명사회가 지향하며, 만들어 낸 기술을 그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까지를 제시한 건축가였다. 구세군 건물에서의 설비시설에 대한 제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편할 것 같다. 특히 르 꼬르뷔제가 제안한 파리지 개조안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하려는 문맥과는 다른 제안 내용이다.

내부환경을 만들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축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르 꼬르뷔제 건축의 문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맥은 엄격한 의미에서 건축의 문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축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What should be)라는 명제에 대한 건축가의 의지라고 보아야 한다. 즉 거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결정론적이며 선구자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건축에서의 문맥에 대한 강조는 사실 현재 있는 현상으로서 건축, 즉 현실(What is)에 대한 이해와 상식에 근거한다. 르 꼬르뷔제는 근대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더 큰 목표를 둔, 즉 목적성과 이상적 당위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건축을 한 건축가였다.

여하튼 우리는 테일러교수의 강연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강연을 계기로 어느 특정 전문 주제를 가지고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우리 건축계에 정착시킬 필요성을 더 강하게 받았으면 한다. 르 꼬르뷔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좀 더 그의 구세군 건물에 대하여 조명해 보자.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인 구세군 건물(Salvation Army, *Cité de Refuge, l' Armée du Salut*)은 사실 르 꼬르뷔제의 건축 이상과 많은 점에서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테일러교수가 강연에서 지적한 것 외의 몇가지를 언급하자면, 구세군 營門의 병사들은 공동주거에서 공동생활에 동참해야 한다는 구세군 교리는 르 꼬르뷔제가 주장하는 공동주거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구세군이 요구하는 생활내용을 건축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집합주거에 관한 르 꼬르뷔제의 생각은 일찌기 그의 어린 시절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 여행에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내용이었다.

르 꼬르뷔제는 이 여행에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엄청난 건축적인 계시를 얻는다.그 다음으로 그가 충격을 받은 곳이 플로렌스 부근 에마(Ema)에 있는 카르투지오 수도원(Carthusian Monastery)이었다. 낭만적인 풍경과 형세를 갖춘 옛날 마을 에마에서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카르투지오 수도원의 배치유형이 보여주는 엄격한 규칙성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배치유형은 바로 다름아닌 수도원 공동주거 내용을 다이어그램화 시킨 것이라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후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처음에는 이번 강연에서 본 구세군 건물에서, 그리고 만년에는 마르세이유 아파트(*Unité d' Habitation Marseilles, 1952*)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

구세군 건물은 카르투지오 수도원을 르 꼬르뷔제 시대의 건축어휘로 트랜스폼 시킨 것이다. 그가 설계한 구세군 건물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세계임을 암시할 수 있도록 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배는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단절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배는 기독교적인 이미지의 方舟(Ark)일 수도 있고,

기계산업시대의 기계미(Engineer's Aesthetic)를 상징하는 기선(Ocean Linear)일 수도 있다. 그것은 피난처의 의미를 지니는 단순한 안식처(Simple Refuge)라기 보다는 건축가 르 꼬르뷔제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생활환경을 지닌 안식처였다.

이러한 해결은 사실 건축가 르 꼬르뷔제가 추구하며 실현시키려고 한, “어떻게 거주해야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To know how to dwell is to know to live)라는 건축가의 건축적인 신념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르 꼬르뷔제는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둘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건축적인 기능의 은유법(Metaphore)을 자신의 건축어휘로 구사하며 실현하는 선구자였다. 한 예로서 구세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외부에서 건물에 진입하며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와 시퀀스, 그리고 그 처리 기법과 내용은 마치 기계산업시대의 공장의 부품조립 라인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사실 르 꼬르뷔제는 자연은 모든 것이 감추어진 비밀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기계(Machine)로 인식하였으며, 건축의 궁극적인 형태도 기하학적인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파악한 건축가였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역시 르 꼬르뷔제에게는 하나의 진화된 기계였으며, 이러한 기계미학을 건축예술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은 르 꼬르뷔제가 즐겨 이야기하였듯이 善製造廠(Factory of Good, Usine de Bien)이어야 했다. 그 속의 거주자는 물리적으로 흡족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정신적으로 안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세군 건물의 부분적인 해결에 있어서도 르

꼬르뷔제는 그가 추구하려는 건축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모듈러 시스템이다. 이 구세군 건물에서는 그가 후기에 설계한 라 투레뜨(La Couvent de La Tourette, 1960)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듈 개념이 도입되었다. 집단 공동주거에서, 그것도 수도원과 같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주거에서 그는 집단의 힘과 그 속의 개인이 지녀야 할 자율성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순수성을 모듈에 바탕을 두고, 작은 실에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였다.

이상,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테일러교수의 「르 꼬르뷔제와 파리 :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 강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의 건축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구세군 건물을 통하여 두서 없이 살펴 보았다.

비록 르 꼬르뷔제의 건축은 그의 후기 작품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테일러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그의 초기 작품에서 건축적인 의지를 재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더구나 그가 초기에 구현하려고 했던 건축적인 의지가 만년의 작품에 어떤 식으로 승화하였는가를 읽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이런 점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르 꼬르뷔제의 한 부분일 것이다.

계절스럽게 설치고 다니는 갈까마귀(Raven)와도 같은 모습으로 혼신으로 건축에 정열을 쏟은 건축가 르 꼬르뷔제(Corbeau = Raven), 그의 상징적인 여러 모습은 아직도 우리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그 그림자 속의 그의 건축정신을 절실히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르 꼬르뷔제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가고 있는, 가야 할 방향을 건축가로서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살고 있던 땅의 역사와 문화도 건축가로서 배제하지 않으며 건축을 한 건축가였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건축정신이 아닐까.

회원작품 및 원고모집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과 “건축사”誌의 질적향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사”誌는 여러분의 궤를입니다.

1992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건축사”지를 만들고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1. 회원작품

- 1) 대상 : 최근 2년이내에 완성되어 준공을 필한 작품
- 2) 요령 : ◇ 작품 슬라이드(4매 이상) ◇ 도면은 잉킹도면으로 제출 ◇ 설계개요 및 간단한 작품설명서 첨부

2. 기타원고

- | | |
|----------------------------|-----------------------|
| 1) 작품 스케치 : “건축사”誌 스케치란 참조 | 4) 논문 : 원고지 40~60매 내외 |
| 2) 수필 및 기고 : 원고지 20매 내외 | 5) 건축기행문 |
| 3) 시 : 시작노트 및 스케치 개첩 환영 | 6) 해외건축동향 |

3. 제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 581-5711~4